



오늘의 날씨와 생활

4월 12일 월요일 음 3월 1일 (8월)

기상정보

호리고 비



대체로 흐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5°C 내외, 낮 최고기온은 18~20°C로 전망된다.

Table with 4 columns: Time (오전, 오후), Wind (강수, 확률), and other weather indicators.

Table with 2 columns: Time (해돋이, 해질녘) and Wind (달뜸, 달짐).

Table with 2 columns: Air Quality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and other indicators.

Table with 2 columns: Day (내일, 모레) and Weather (호리고 비, 구름 많음).

월드뉴스

미얀마 시위대 소식 공유 창구 '유인물'

인터넷 접속 차단 수위 높아져 1988년 민주화 운동 벤치마킹



미얀마 반군부 유인물 '봄의 목소리'.

미얀마 군부가 인터넷 접속 차단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미얀마 활동가들이 과거 방식을 벤치마킹해 유인물을 통해 시위 소식을 공유하며 저항 의지를 다지고 있다.

또는 '투위즈' (Towards)다. 우리말로 '향하여' 정도로 번역된다.

조만간 군부가 유일하게 남은 유선 인터넷마저 끊길지 모른다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정보 암흑'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위 동력을 살리기 위한 교육지책인 셈이다.

7쪽짜리 소식지로 저항 운동과 관련한 기사 및 시(詩) 등이 실려 있으며, 대학생연합의 전·현직 구성원들이 발행에 참여하고 있다.

11일 현지 매체 미얀마 나우에 따르면 미얀마에서는 현재 4중 정도의 반(反)군부 유인물이 발간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유인물 발간 목적에 대해 대중들이 반군부 저항 운동 관련 정보를 접하고 해당 운동에 참여하도록 하며 저항의 여러 기법을 공유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학생 운동가들이 주도하는 이 유인물은 지난달 말부터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부가 지난달 15일부터 휴대전화 인터넷(모바일 인터넷)까지 차단한 것이 결정적 계기로 보인다.

이런 유인물은 지난 1988년 민주화 운동 당시에 많이 활용됐던 소식지와 유사한 것이다.

가장 먼저 등장한 소식지는 '시포'

한리일보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website, phone, and address.

백록담



문 미숙 경제산업부장

제주시 연동에 들어설 9억원대의 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4㎡) 민간아파트 가격이 연일 압박이다.

이 분양가를 접한 도민 반응은 "내 집 마련의 기회는 점점 더 멀어지겠구나"에서부터 "지금 집이 비좁아 커가는 아이들을 생각해 좀 더 넓은 집으로 옮길 계획이었는데..." 하

주거 양극화 심화되는 제주, 살기좋은 곳인가?

는 허탈감이다.

이들의 허탈감은 9억원대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다. 시세보다 높은 값에 거래된 아파트 한 채가 같은 아파트는 물론 인근 가격까지 들쭉거리게 하는 부작용을 그동안 솔하게 보아왔기 때문이다.

최고가 분양아파트 공개에 바로 앞서 3월 말 인접한 연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가(전용 83㎡에 5억8160만~6억7910만원)가 나오자 시중의 여론은 '너무 뛰었네'였다.

부가 지난해 지정된 부동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영향으로 투기수요의 관심이 높아 지난해 하반기부터 제주시권 단지형을 중심으로 5000만~1억원 가까이 급등하는 풍선효과로 전용 84㎡가 6억원대 초·중반까지 된 상태다.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분석하면 부동산경기가 활황이던 2016년 1월 도내 민간아파트 평균분양가격은 ㎡당 227만원으로 전국평균 분양가(274만원)보다 17.2% 낮았다.

2020년 4월 기준 도내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

액은 289만원이다. 전국평균(379만원)의 76.3% 수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저인데 집값은 나흘로 내달리는 형국이다.

제주도는 수 년 전 집값 폭등의 심각성을 감안해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제한을 둘 수 있는 권한을 제주도가 정부로부터 이양받는 방안을 추진했던 적이 있다.

열린마당

고사리 안전하게 채취하세요



이지현 서부소방서 안덕119센터

제주도에 고사리 장마가 시작하면 제주도 전역은 고사리를 채취하려는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최근 5년간 통계에 따르면 제주도 내 고사리 채취 길 잃음 안전사고는 4~5월에 집중 발생했으며, 매년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사전 예방대책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사리 채취 길 잃음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요령 3가지로 첫째, 고사리 채취 시 두 명 이상이 동행하는 것이 좋다.

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휴대전화 및 호루라기를 휴대한다. 사고 발생 시 보다 빠른 신고와 위치 파악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고사리를 더 채취하려고 깊고 외진 곳까지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일출 전에는 하산하고 채취 중간마다 일행에게 자신의 위치를 미리 알리는 게 좋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지난달 31일에 고사리 채취 주요 입산로에 길 안내 표지를 하고, 길 잃음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위급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고 행복한 고사리 꺾기가 될 수 있도록 하자.

긴급제동시설, 안전한 제주 위한 것



김항수 제주동부경찰서 아라파출소

7년전 5·16도로(제주시방향)에서 중앙로로 이어지는 내리막길에서 일어난 대형교통사망사고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일어나고야 말았다.

필자는 몇 년전 제주도에서 공모했던 교통안전분야에 5·16도로에 긴급제동시설(Emergency Escape Ramp)을 가지고 공모했으나 불체택이 됐다.

만약에 그때 공모했던 긴급제동시설이 채택돼 설치됐더라면 이번 에 발생한 대형교통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뒤숭숭했다.

5·16도로(제주시방향)에서 중앙로로 내려가는 내리막길은 급경사

와 급커브로 이뤄져 있어 주행하는 운전자들의 브레이크 작동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브레이크 고장 시 대형인명사고위험이 매우 높은 구간이다.

긴급제동시설은 주행중인 자동차의 제동장치가 고장날 경우 자동차의 도로 이탈 및 충돌사고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긴급제동시설은 바닥에 자갈과 모래 등이 설치돼 차량 진입시 속도를 감소시켜 제동을 하게 돼 내리막길 사고에는 최고의 교통안전시설이라고 생각된다.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사태에서도 제주경찰들은 개개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 이 시대의 요구이고 긴급제동시설설치를 강력히 요구할 때가 온 것 같다.

더 안전한 제주를 위하여!

Advertisement for Boraflower.com featuring various potted plants and services. Includes text: '전국 꽃배달 서비스 38년 전통 농장에서 직접재배 판매까지 제주에는 꽃보라화원이 책임집니다.'

Advertisement for car rental services. Text: '차량 구매 고객님의 한해서 블랙박스 설치해 드립니다!' and '정성자동차 성심껏 상담해드립니다'.